

# 교과서·스마트폰 놓고 다산·신영복을 만나다

송원여고 '하루종일 책임기' 행사  
140명 토론·작가와와의 대화 참여  
독서행사 다양 "책은 교육의 힘"

토요일인 지난 24일, 광주 송원여고 1·2학년 교실이 독서실로 바뀌었다. 각 교실 앞에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등 여러 책 제목이 붙어있었고 학생들은 오전부터 오후 5시가 넘도록 자연스럽게 책에 빠져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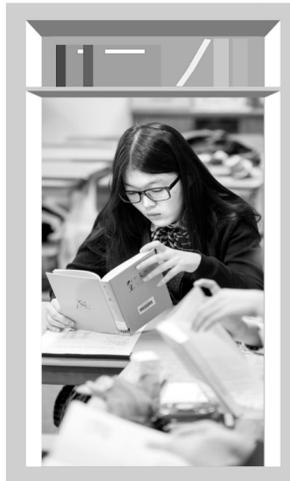
독서까지 입시와 연결짓는 요즘 현실 탓에 책임기가 괴로운 듯 한데, 이들 학생들에게 독서는 '좋아서 하는 일'이었다. '하루 종일 책임기'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도서관 앞에서 이른 시각부터 신청서를 내려고 줄을 서는 '보기 좋은' 장면도 연출됐다고 학교측은 귀띔했다.

송원여고의 다양하고 풍성한 독서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독서 장' 학교라는 별칭을 붙여줄만하다. 특히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학생·교사가 함께 탄탄한 독서기반을 닦아나가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전교생의 '행복한 책임기'가 가능하게 됐다.

◇'독서 훌릭'에 빠져라=송원여고의 독서 프로그램은 '고딩은 리딩(Reading)'이라는 슬로건에 따라 '책을 읽는 습관'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이 책이 좋아서 제 발로 도서관을 찾도록 동기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최윤수 교장의 독서 철학이다.

송원여고의 '사제 동행 책임기', '하루종일 책임기', '독서 문학기행', '자투리 시간 책임기' 등 프로그램도 이런 의도가 스며들어있다. '빛고를 독서마라톤 대회 참가'도 같은 취지로 강조되고 있다.

'사제 동행 책임기'의 경우 매일 오전 30분 동안 담임 교사와 책 읽는 것으로 하루



도서관이 된 교실 학생들에게는 성적, 입시와 연관짓게 되면 재미있는 책이라도 한없이 괴롭다. 하지만, 송원여고 학생들에게 '책 읽기'는 좋아서 하는 일이다. 새벽부터 줄을 서 참가 신청한 '하루종일 책임기' 행사에서 다양한 자세로 책을 읽거나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수업 전 자연스럽게 책 읽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하게 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학교측 설명이다. '자투리 시간 책임기'도 점심·저녁 식사 뒤 남은 시간에 책을 읽어 독서 습관을 기르자는 의도로 시작됐다.

'사제 동행 책임기' 등이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라면 다양한 장르의 책을 통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하루종일 책임기'다.

쉽게 정착될 것 같지 않던 프로그램이지만 올해로 벌써 6번째 행사가 치러졌다. 참여 신청서를 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등 참여도도 높다.

올해도 1·2학년 127명이 8개 모둠으로 나뉘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신영복), '자기 앞의 생'(로맹 가리), '누가 내 머릿속에 브랜드를 넣었지?'(박지혜), '나에게

문다'(정민호),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정약용) 등을 읽고 생각을 나눴다. 이날도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수다 떨듯이 서로 묻고 토론하는 학생들 모습이 눈에 띄었다.

노진권 전 송원대 교수가 매회 '단골' 멘토로 참석하는 등 여러 선생님들이 다양한 장르의 책을 선정하고 토론하는 데 참여,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의 멘토로 나선 박주삼 교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대책과 기아 문제를 연관지어 토론하다 보니 신자유주의로까지 주제가 확장됐다"고 평했다. 학생들의 편독하는 습관을 덜어낸 뿐 아니라 가벼운 수다에서 출발,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서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와와의 소통하는 계기가 된다. 이날 멘토로 나선 정민호 작가는 책 읽기 행사와 관련, "독자와의 거리감을 좁

히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면서 "'꿈'을 주제로 한 다양한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음·느낌 있는 독서들=송원여고 최윤수 교장은 "책 만큼 큰 힘을 가진 것은 없다"고 단언한다. 책임기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독서 프레젠테이션' 등 학교의 모든 독서 프로그램이 꾸준히 진행되는 데는 최 교장의 철학과 의지도 한몫을 했다.

최 교장은 "책을 읽으면서 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이 길러지고 사고력·문장력 등이 풍부해진다"며 독서로 인한 효과를 강조했다.

최 교장은 '하루종일 책임기' 프로그램 등 학교 행사 모두를 동영상으로 제작, 학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리며 학생들 사이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교내 생활불편 해소 아이디어 백출

'조선대 창업지원단 경진대회' 스쿨 택시 도입 등 제안

'저렴한 가격의 '스쿨 택시'를 도입할 시다',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면 학생들의 캠퍼스 이동이 수월하지 않을까요' 조선대가 최근 창업지원단을 통해 진행한 '2015 교내 생활불편 개선 창의적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특출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행사였다.

대회가 캠퍼스 생활 중 겪었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창의성 넘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특히 대학 정문부터 대학 본관, 법대·경상대까지 오르내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학교의 지리적 예외사항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가 적지 않았다.

스쿨 택시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조윤희 선박해양공학과), 교내 운영중인 택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유형렬 기계공학과)이나 학생 3~4명이 함께 타는 택시 운영 시스템(정성

현 에너지자원공학과),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박선후 건축학과·유향아 컴퓨터공학과), 기존 45인승 버스와 달리, 외국에서 운영중인 버스 1대 반 크기의 60인승 버스 운영(선용원 건축학과) 등의 아이디어가 넓은 학교를 이동하는 불편함을 덜어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다만, 이들 아이디어의 경우 사업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점에 따라 수상자에게 포함되지 않았다고 사업단은 설명했다.

사업단은 32명이 낸 아이디어 중 창의성 선 센서로 위치를 인식, 물컵 충이를 배출하는 아이디어를 낸 박재근(전자공학과 4년)씨를 대상으로, 취업·입학·행사 등 조선대 알릴 어플리케이션 계획을 구상한 강이삭(전자공학과 3년)씨 아이디어와 수업중이거나 연구실 재실 여부, 면담요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박민기(컴퓨터공학과 2년)씨 구상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 23일 열린 '조선대 생활불편 개선 창의적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조선대 제공>

## 교육단신

▲동강대가 초고압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계를 차단하면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추진한다.

동강대는 전기전자과가 서울대 기초전력연구원 주관의 '한전의 2015 전력산업 기초연구 공모전'에 '초고압 송전선로 공진기 연구개발'이라는 과제를 제출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연구팀은 오는 2017년 9월까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동강대 측은 "전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기장 노출 우려로 인해 초고압 송전선로 건립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심한 현실"이라며 "초고압선

로에서 발생하는 전자계를 차단하고 이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로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할 시기"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호남대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대학 IT스퀘어 광장 일대에서 '2015 어드벤처'를 연다.

총학생회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재학생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하는 의미에서 '일심동체'(一心同體)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다. '어드태로 가요제', '커피이벤트'가 진행되는 '견우와 직녀', 21개 학과가 운영하는 주막의 대표 음식 등을 겨루는 '주막을 부탁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국내 여성 1호 DJ 춘자와 아이언티, 나인뮤지스 등이 초대가수로 나온다.



'하루종일 책임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송원여고 학생들이 지난 24일 교실에서 멘토 선생님과 책을 읽으며 토론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독서 갈증 푸는 시간이었어요"

하나(17·2년·사진)양은 '하루종일 책임기' 행사에 푹 빠져 있는 학생 중 하나다. 하양은 "학교 공부하다보면 책 읽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루 종일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즐겁다"고 했다.

매일 오전 수업 전 30분 동안 책 읽는 것이나 자투리 시간 읽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싶었는데, '하루종일 책임기' 행사는 이런 '갈증'을 해소해 주는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

하양은 1학년 때부터 매년 두 차례 열리는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카프카의 '변신', 니쿠이치치의 '히고' 등 그때마

다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접하게 된 게 좋았다고 말했다.

하양은 올해도 "어떤 책을 읽게 될까", "이번엔 어떤 주제로 선생님과 토론할까"

등을 고민하다가 "누가 내 머릿속에 브랜드를 넣었지"라는 책을 선택했다. 하양은 "다소 어렵게 생각될 내용을 삽화에 적절한 사례를 들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다"는 평을 내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10월 31일까지)

**상담문의**  
**010-3605-5000**

## 담양 금성면, 송학랜드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산 2-5번지 (담양댐 하루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구, 송학랜드)
- 시세/감정가 - 30억 정도
- 급매 - 17억 2천만원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 연 2.1%, 월 이자 220만원) (1년후 18억이상 재대출 가능)

## 금호동 7층,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사거리 맞은편 코너)
- 7층중 701호, 건 120평, 사면유리, 전망최고
- 과거, 빅스바(7080) 운영
- 시세/감정가 - 7억 정도
- 급매 - 5억 2천만원 (용자 3억 6천만원 포함) (1년후 5억이상 재대출 가능)

**경매투자**  
 ▶투자 하실 분! 단독/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돈·빌려주실 분! 1순위 근저당 설정 연 10% 이자 지급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